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지과학에서 ‘인지’는 일상적으로 사고나 지각을 가리키지만, 학술적으로는 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이 ‘인지’의 본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지 과정의 경계’와 ‘동등성 원리’라는 개념이 제시되었고, 클라크와 애덤스 사이에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해석의 차이는 인지 과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철학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클라크와 애덤스는 ㉠ ‘인지 과정의 경계’와 ‘동등성 원리’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클라크는 ‘인지 과정’을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어떤 과정이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신체 외부에서 일어나도 인지 과정이다. 따라서 인지의 경계를 확장하려면 기능적 역할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등성 원리’는 바로 기능적 역할이 동등하면 신체 안팎의 과정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애덤스는 인지 과정을 ‘비파생적 내용’을 지닌 표상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비파생적 내용은 사회적 약속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적으로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 신경 상태는 비파생적 내용을 지니지만 문자나 기호는 파생적 내용을 지닌다. ‘동등성 원리’는 비파생적 내용의 유무를 무시하고 기능만으로 인지를 판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인지과학자들은 인지 이론이 뇌의 작용 과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지 주체가 환경과 맺는 관계 또한 ㉡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클라크도 개인이 인지 과정을 통해 인지 능력을 발휘한 후에는 주변 환경의 요소를 활용하여 더 강력한 인지 체계를 이루도록 인지 능력이 ㉢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환경의 요소를 활용하여 하나의 인지 체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 ‘결합 체계’이다. 클라크는 기억 장애를 겪는 사람이 노트에 정보를 ㉤ 기록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례를 들어, 이 노트가 그 사람의 인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노트의 정보가 그 사람의 생물학적 기억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애덤스는 결합 체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애덤스는 ‘결합’을 인지 주체와 환경 사이의 인과적 상호작용으로 해석한다. 그 사람의 뇌와 노트는 인과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인과적 결합이 곧 인지 체계 구성의 조건은 아니다. 노트는 그 사람의 인지 과정에 인과적으로 기여할 뿐 그 과정을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과 관계와 구성 관계를 혼동하는 오류를 ‘결합-구성 오류’라 부르는데, 애덤스는 클라크가 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클라크와 애덤스 모두 뇌의 작용뿐 아니라 인지 주체와 환경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를 공유한다. 하지만 그 목표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클라크는 인지 주체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 확장된 인지 체계를 이룰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애덤스는 당대의 학자들이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인지의 본질적 속성인 비파생적 내용을

간과하는 문제를 ㉦ 해결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1.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지’는 클라크와 애덤스가 최초로 제안한 정보 처리 개념이다.
- ② 클라크는 인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인지 과정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③ 클라크와 애덤스의 논쟁에서 인지 과정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클라크와 애덤스 모두 인지가 뇌의 작용과 환경과의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클라크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친 학자들이 비파생적 내용을 간과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었다.

2.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클라크와 애덤스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클라크와 애덤스 모두 ㉠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을 강조하였다.
- ③ 애덤스는 ㉠을 신체 내·외부의 기능적 역할이 동등하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에는 환경적 요소도 인지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클라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애덤스는 ㉢이 인지 주체와 환경 사이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적절한 개념이라고 보았다.

3.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차머스는 클라크와 함께 제안한 ‘결합 체계’를 인지 과정의 확장으로 보았지만, 이후 확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클라크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환경 요소가 인지 체계에 포함되려면 단순히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지 주체가 그 요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긴밀한 결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애덤스는 차머스가 ‘인지 과정’을 기능적 역할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차머스가 ‘인지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 ① 차머스와 애덤스는 ‘인지 과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애덤스는 차머스의 ‘인지 과정’ 해석이 클라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차머스의 ‘결합 체계’ 해석은 애덤스가 아닌 클라크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차머스와 애덤스는 클라크의 ‘결합 체계’ 해석이 ‘결합-구성’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았다.
- ⑤ 차머스는 ‘결합 체계’에서 환경 요소와의 긴밀한 결합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클라크와 구분된다.

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밝혀야
- ② ㉡: 팽창되어야
- ③ ㉢: 회상하고
- ④ ㉣: 조정된
- ⑤ ㉤: 수습하고자